



도서관의 대출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다.

휴대전화 등으로 책을 볼 수 있는 '유비쿼터스 독서'(이하 U-Book) 서비스가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타지역 도서관의 책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도서관 대출 서비스의 진화 '유비쿼터스 독서' 인기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광주시립도서관은 이용객들이 굳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전자책도서관 홈페이지(http://ebook.citylib.gwangju.kr)에서 U-Book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이용객들은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한 후 읽고 싶은 책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내려받아 즐길 수 있다.

도서관이 갖춰져 있다. 이용객 수는 7월 현재까지 1만5천153명. 미디어의 특성상 10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U-Book 인기도서 역시 '첫사랑' 등 로맨스 소설의 대출이 많은 편이다. 휴대전화 서비스의 경우 현재 SK텔레콤과 KTF만 가능하다. ▲책의 핵심 내용만 알고 싶다면=책 한 권

북 50종을 서비스 중이다. 역시 회원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다. 062-613-5347.

▲타 지역 도서관 소장 책도 볼 수 있다 = 서울, 부산 등 다른 지역 도서관에 소장된 책도 인근 도서관에서 볼 수 있다. 시립도서관 등은 지난 4월부터 전국 300여 곳의 공공도서관들과 함께 도서관 간에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서비스인 '책바다'를 운영하고 있다.

'책바다'는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거주 지역 내 공공도서관에 없을 경우 다른 지역의 도서관에 신청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국도서관의 책을 모으면 바다를 이룬다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멀리 떨어져 있는 도서관의 책을 가까운 도서관에서 받아본다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자신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책바다 홈페이지를 방문, 회원 승인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다.

수량, 지역에 관계 없이 왕복 택배 비용으로 4500원을 지불해야 하며 계좌이체와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

자료대출은 1인당 3권 이하로 14일간 이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7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컴퓨터로 읽어 타지역 도서관 책·북 다이제스트도 가능

원하는 책을 '내 서재'에 내려받아 집이나 사무실 등 PC를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이동 중에는 휴대폰이나 PDA로 동일한 책을 읽는 게 가능하다.

특히 휴대전화를 이용해 U-Book 서비스를 이용하면 장거리 여행이나 휴가 또는 출장을 떠날 때, 두꺼운 종이책을 챙기거나 전자책이 담긴 노트북PC를 가지고 가지 않고도 평소 읽었던 책을 편하게 읽을 수 있다.

지난 2006년 문을 연 전자책도서관에는 문학, 경제, 대학교재 등 모두 6천988종의 전자

읽는데 30분만 투자하면 된다. 광주시립도서관은 지난해부터 '북 다이제스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북 다이제스트'는 추천 도서의 핵심 내용을 5% 내외의 분량(A4 10~15매)으로 요약해 놓은 전자책을 말한다. 인터넷 뷰어프로그램을 통해서 볼 수 있고 한글파일, PDF파일로도 볼 수 있다.

또 '오디오북'을 통해 도서 요약본의 내용을 직접 들을 수도 있고 동영상상을 통해 특강도 즐길 수 있다. 현재 요약본 307종과 오디오



동요 '자전거' 작사가 故목일신 선생 고흥서 기념사업 본격화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로 시작하는 동요 '자전거' 작사가인 고흥 출신 고(故)목일신 선생의 기념사업이 본격화된다.

고흥군은 목 시인의 작품세계를 재조명하는 작업을 체계적으로 전개, 군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시킬 예정이다.

군은 우선 고흥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에 노래비와 상징물, 동상 등을 세우기로 했다. 현재 목 시인의 시비는 시인의 묘고인 고흥동초교 교정에 세워진 '누가 누가 잡자나'가 유일하다.

군은 또 (가칭)목일신 전국어린이 동요·동시 대회를 개최키로 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1913년 고흥군 고흥읍 고흥리 태생으로 고흥공립보통학교(현 고흥동초교)를 졸업한 목씨는 고흥공립보통학교 5학년(1927년) 때 동요 '산사내'가 동아일보에 게재되며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이후 '자전거'(1927년) 등 수많은 동요의 노랫말을 지었으며 가요, 민



고흥동초교 교정에 있는 목일신 시인의 '누가 누가 잡자나' 노래비.

요, 시 등 모두 400여편의 작품을 남겼다. 해방 이후에는 '해방대의 노래', '대한의 노래' 등을 작사했으며 '고흥군민의 노래' 역시 목시인의 작품이다. /고흥=주각중기자 gju@kwangju.co.kr

화음으로 전하는 사랑의 마음

여성 성악가들 모임 '한소리회'

병원·경로원 '희망나눔 콘서트'

지역 여성 성악가들의 모임인 한소리회(회장 박미에 광주대 교수)가 병원과 경로원 등 문화소의 지역을 직접 찾아가 '2008 신나는 예술여행-희망과 나눔 콘서트' 공연을 펼친다.

한소리회는 4일 조선대병원과 나주중부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8일까지 순천가톨릭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순천 성신원, 광주여유원, 해남등대원, 배데스다요양원 등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들려줄 예정이다.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이어 세번째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행사가 진행되는 무대에 특성에 맞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아동·청소년 시설에서는 '날아라 슈퍼보드' 등 만화영화 주제곡과 가요, 동요 등을 들려주며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연에서는 '가요 반세기 메들리', 가곡 등을 선사한다. 출연자는 유형민·이윤순·이지영·박정희·임영란·이현



속·박유미·천현주씨 등이다. 지난 2000년 결성된 한소리회는 국내 다양한 무대에서 왔으며 인도 자카르타, 태국 방콕 등 해외무대에도 공연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다산 정약용 미공개 유물 41점 청자문화제 통해 일반에 공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미공개 유물이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청자문화제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유물은 조선 후기 서학(西學)사상을 도입한 정약종(丁若鍾), 약전(若鉉), 약옹(若鏞) 3형제와 다산의 조카사위였던 황사영 등 다산가(茶山家)의 천주교 관련 미공개 유물 등 모두 41점이다.

강진군은 예술의 전당 등과 함께 다산 정약용 선생 유물 특별전을 '다산가와 천주교'라는 주제로 청자문화제 개막일인 9일부터 한달간 강진 다산유물전시관에서 열 계획이다.

군은 3년전부터 청자문화제를 앞두고 다산 관련 미공개 유물 공개 행사를 가져왔으며, 이번에 공개되는 유물을 통해 다산가의 천주교와의 인연 등을 살펴볼 수 있게 됐다. 군은 이에 앞서 4일 오후 미공개 유물을 언론 등에 1차 공개한다.

다산은 신유교난 사건으로 강진으로 유배된 뒤 18년간 지방행정의 개혁과 세신, 토지분배, 노비제 폐기 주장 등 개혁사상으로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젊은 작가 7명의 '끼' 한자리에

광주롯데화랑, '일단합체 프로젝트, 플러스'전

광주롯데화랑이 13일까지 광주지역 젊은 작가 7명의 '끼'를 한자리에 모은 '일단합체 프로젝트, 플러스'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권진희, 김은와, 박인선, 이인성, 이진상, 조은애, 최선씨 등이 참여해 회화와 설치 작품 등을 선보인다.

주제인 '플러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각자의 생각을 더하는 의미이다. 또 교차로와 십자가 등을 상징하는 '+'의 기호화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

권진희씨는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진압군이 도청 인근에서 군무를 서고 있는 사진에 로보트를 합성시킨 풍자 작품인 '영웅,어쩌다 마주친'을 선보인다. 이인성씨는 여인의 모습 뒤로 흰 여우가 뛰어나는 모습을 형상화시켜



이진상 'externality' 인간의 내면을 그린 '외롭지않아'를 전시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Gyokrakjeon Namgol-dang is here).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traditional Korean building and text promoting a cultural event. The text includes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and '무등산 문화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It also lists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event.

Advertisement for 'ANYCHE CHAIR'. It features a large green office chair in the center, surrounded by smaller images of other office chairs in various colors (black, red, white). The text 'ANYCHE CHAIR' is prominently displayed at the top. At the bottom, there is a logo for 'Anyche' and some descriptive text in Korean.